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태워버리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사는 조카 롯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로운 사람이 몇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려 마음 먹으셨지만, 롯과 그의 식구들은 구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시가 하나님께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등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세요!”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은 살려 주려고 하신 거예요.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돋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우황에 불이 붙은 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처럼 퍼부었어요.

그곳의 사람들과 동물들,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불에 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절대 불타는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그 막속을 밟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9:29)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ooo}. 내보내셨더라

활동 1.

별꽃을 잘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붙여주세요.





Sodom and Gomorrah 7